

야고보서 18번째 말씀

최고의 법, 이웃 사랑

야고보서 2:8-13

- 8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9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10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1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12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3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는 차별대우가 왜 잘 못인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르치신 최고의 법을 제시한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최고의 법 “이웃 사랑”을 순종하는 자는 차별 대우를 할 수 없는 것이다.

## 1. 왜 이웃 사랑이 최고의 법인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가를 물었을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2:37-40에서 이렇게 답변 하셨다.

- 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다. 강령이란 빨래 줄과 같은 것이다. 빨래 줄에 온갖 옷들이 다 걸려 있듯이 이 두 가지 계명에 모든 율법이 다 걸려 있다는 말이다. 첫째 계명은 둘째 계명의 기초이다. 그러므로 첫째 계명을 지킨 자는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웃 사랑은 모든 계명의 표준이다.

- 9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10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1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차별 대우하는 것도, 간음자도, 살인자도 이웃 사랑의 계명을 범한 자이다. 그러므로 한가지 죄만 지어도 이웃 사랑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범법자가 된 것이다.  
10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반면에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과 같다.

갈 5:14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러므로 이웃 사랑의 계명이 최고의 계명인 것이다.

## 2. 이웃 사랑이란 무엇인가?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셨다. 여리고를 지나다가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맞아 거의 죽게 되었다. 그의 처참한 상황을 보고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냥 지나 갔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기름을 말라 싸매주고 여관에까지 데려가서 돌봐 주었다. 그러면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고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물으셨다. 그는 자비를 베푼자라고 대답했다. 그렇다. 내 이웃은 내가 도움을 주어야 할 자이다. 성경은 우리가 가까운 가족이나(딤후 5:8), 믿음의 가족을 돌보라고 말씀 하신다(갈6:10).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서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까지 돌봐주어야 한다고 말했다(누가복음 14:12-14). 사람을 차별해서 선별적으로 후대한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은 내 이웃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이웃 사랑을 선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다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그들만을 사랑하고자 한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그 속마음을 들여다 보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자를 대우하고 우리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대한 것이다. 이것은 최고의 이웃 사랑의 법을 어긴 것이다.

### 3. 어떻게 우리는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가?

12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3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12절에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자”란 무엇인가?

**자유**의 율법이란 우리를 얽매이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완전히 율법을 준수하셨고, 율법의 형벌을 대신 받아 속죄를 온전히 이루셨다. 완전한 율법을 준수한 삶을 active obedience라고 말하고 속죄의 죽음을 passive obedience라고 한다. 이 두 가지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위한 율법 준수로부터 해방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말한다(1:25).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율법을 새기시고(예레미야 31:33) 그것이 날마다 제자로서 새 생활을 하기 위한 패턴이 되게 하셨다.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자”란 그 율법의 기능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다. 율법 준수가 구원 받기 위해서는 더 필요 없게 되었지만 율법 준수의 의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우리는 율법 순종에 대한 의무가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면제 해 주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순종해야 할 새로운 근거를 제공해 준다. 율법은

더는 규범의 외적인 체계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법이다. 율법 순종은 구원 받기 전에  
는 100프로 불 가능한 것이었지만 구원 받은 후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율법 순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내주하  
신 성령의 은혜로 율법 순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놀라운 은혜로 구원 받기 위해 더  
이상 율법 준수의 의무가 면제 되고 더 나아가 율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여 율법을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슬프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긍휼을 베풀고 살아야 한다.  
13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  
랑하느니라

이 말씀은 두가지 사실을 강조한다.

첫째,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없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자, 곧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이다 그 심판은 죄의 심판과 같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받은 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  
한다.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자라고 말한 것과 같다.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자비를 베풀때 때 충만한 하나님의 누리며 살 수 있다.

둘째, “그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공흠을 회복 할 때 심판을 이기고 다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공흠을 행하지 않는자가 운명적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다시 공흠을 행할 때 충만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웃 사랑의 최고의 법의 핵심은 공흠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나타난 곳에는 최고의 법인 이웃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 공흠이 넘치는 곳이다. 공흠이 넘치는 곳에 복음의 역사는 흥왕한다. 세상은 공흠이 넘치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 공흠을 경험한 교회가 그 공흠을 드러낼 때 세상은 우리를 주목 할 것이다.

나는 긍휼이 넘치는 한 권사님을 알고 있다. 내가 그를 알게 된 것은 거의 50년전의 일로 기억 된다. 그분은 대학생 때는 최고 멋쟁이였고 신앙을 가진 후로는 내면의 멋쟁이가 되었다. 그런데 그분이 고3 딸의 대학 입시를 몇 달 앞두고 자기 동생에게 신장 기증 수술을 한 것이다. 딸의 대학 입시를 앞둔 엄마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가는 설명이 필요 없다. 긍휼이 넘치는 그분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된지 모른다. 교회에서 가장 존경 받는 권사님이다. 지금 나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다. 매월 월요일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뜨거운 기도를 해주고 있으며, 한 번도 빠짐 없이 유튜브 방송에 댓글을 통해 격려해 주고 있다.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공허히 부족한가? 나는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자괴감에 몹시 괴로웠다. 어제는 두 시간 동안 엎드려 회개 기도를 했다. 기도가 끝나도 아직 마음이 무거웠다. 어제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냈으나 굳은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2시간 가까이 기도했다. 아직도 마음이 무겁다. 이것이 공허 없는 심판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윗이 기도한 대로 성령을 내 마음에서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방송을 촬영하고 있다. 나는 이와 같은 설교를 할 자격이 없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사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최고의 법,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될 것이다. 주여! 심판을 이기는 긍휼을 베풀게 하소서!! 아멘